

“레슬링, 세계 TOP 명성 되찾겠다”



강경환 광주레슬링 협회장, 세계선수권 한국팀 지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해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현우(삼성생명·그레코로만형 74kg급)와 광주 남구청 정영호(자유형 66kg급)를 비롯해 모두 18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메달사냥에 나선다.

강 단장은 “지난 9일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레슬링을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확정하자 협회에 모인 레슬링 임원과 선수들이 기뻐하며 세계 선수권대회와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자고 다짐했다”고 선수단 분위기를 전했다.

국제레슬링연맹(FILA)은 IOC가 지난 2월 레슬링을 올림픽에서 퇴출하려 하자 세트로 진행되던 경기를 3분 2회전의 중점제로 바꾸고, 여자 체급을 늘리는 등 각고의 개혁노력을 기울였다.

순천 출신인 강 단장은 지난 1969년 완도 청산중 교사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사·연구관, 송정중 교장, 송광중 교장 등을 역임하며 40여년간 교육계에 종事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송정중 교

장으로 재직하며 레슬링과 하기, 골프팀을 이끌며 창단, 레슬링과 인연을 맺게 됐다. 올해 2월 송광중 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한 강 단장은 지난 1월 광주시 레슬링협회장에 취임했고, 대한 레슬링협회 감사직을 맡았다. 이때 김승현 광주시 레슬링협회 전무(조선이공대 교수)는 협회 경기이사에 선임됐다.

강 단장은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심지어 방과후 학습과 병행하자 성적부진아 비율이 27%에서 10년만에 4.2%로 감소했다”면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강 단장은 “레슬링은 옛날 올림픽에서 11개의 금메달을 따낸 ‘효자종목’이다. 광주·전남 출신인 김영남, 김원기, 안한봉 선수가 따낸 금메달은 최경수(전 환평농고 교장), 김재안(현 동부교육청 학생복지건강과장) 등 지도자들의 공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망 선수 발굴과 육성에 힘써 광주는 물론 한국 레슬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글·서인=송기기기자 song@kwangju.co.kr

장애 산악인 김홍빈 대장 ‘고산등반상’

대한민국산악상…광주·전남 등산학교는 ‘등산교육상’

올해 대한민국산악상 ‘고산등반상’ 수상자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고 히말라야 8,000m급 8개봉을 등정한 전남 출신 김홍빈(50) 대장이 선정됐다.

‘등산교육상’에는 34년간 지역 산악인의 요람 역할을 해온 ‘광주·전남 등산학교’가 뽑혔다.

국내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산소통 없이 무산소로 오르고 세계 최단 기록 완등의 기록을 세운 김창호(44) 대장은 ‘산악 대상’을 받았다.

대한산악연맹은 13일 오후 6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3년 산악인의 날 행사 및 제14회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을 열고 이들 산악인을 시상했다.

이날 ‘고산등반상’을 수상한 김 대장은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 단독 등반 중 고소중세와 탈진 등으로 조난을 당하여 심한 동상으로 얼손가락을 모두 잃은 후에도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올랐다.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8개봉을 차례로 등정해 우리나라 산악운동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광주·전남 등산학교’는 지난 1979년 8월 한국등산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리산 피아골에 개설된 ‘제1회 산간학교’가 그 효시로 하게 정규반과 암벽반, 등계 빙벽반을 매년 운영, 새내기 산악인들을 양성해왔다.

지금까지 이 학교를 거쳐간 수료생만 3500여명으로 이 가운데는 50여명의 히말라야 8000m급 등정자와 거벽 등반가들이 대거 포함돼 ‘광주·전남 알파니스트의 산실’로 불린다. 특히 유급강사에 의한 교육

이 아니라 등산학교 출신 선배 산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등산교육상’을 수상했다.

‘산악대상’을 수상한 김창호 대장은 2005년 7월 14일 낭가파르바트(8156m)부터 올해 5월 20일 에베레스트(8848m)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국내 최초로 산소통에 의존하지 않고 완등했다. 특히 7년 10개월 6일 만에 14좌에 모두 올라 풀란드의 예지쿠르크자카가 보유한 최단 기간 완등기록(7년 11개월 14일)을 1개월 앞당기기도 했다.



도 개척등반상은 히말라야 힘중 남서벽(7140m)을 세계에서 최초로 등정한 안치영씨, 고산등반상은 지난해 배링해협을 세계 최초로 횡단한 흥성택 대장에게 돌아갔다. 또 스포츠클라이밍상은 사슬, 특별 공로상은 김병준 씨, 산악문화상은 김용기 씨가 각각 받았다.

올해 산악문화발전 후원금은 지난 5월 히말라야 칸첸중가(8586m) 등정 후 하산 길에 실족사한 고 박남수 대원, 지난 2010년 5월 마나슬루(8163m) 등반 중 7800m 지점에서 사망한 고 박행수 대원 등 9명의 유가족 등에 전달됐다. /정현식기자 who@

aT 광주전남지사, 해남 새날의 집 위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창현)는 최근 추석을 맞아 해남 사회복지시설인 새날의 집을 찾아 위문 품을 전달,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aT 광주전남지사 제공\)](#)

고 김영원 조선대 교수 유족 고자료 기증

조선대학교에 20여년간 몸담았던 고 김영원(사학과) 교수 유족이 고인이 생전에 소장했던 학술 자료 100여점을 조선대학교에 기증했다.

김 교수의 장남인 김관석(사진 오른쪽) 새한병원장은 최근 서재홍 총장에게 원인박사 관련 자료와 고서 등 100여 점을 기증했다.

기증 자료는 고려 유민 두문동 72현이 기록된 고문서 두문동서원지, 1676년 박세당이 지은 농서인 색결, 조선 후기의 대청 및 대일 관계의 고교문서를 접대성한 동문휘집, 일제 강점기 출간된 원본 소학집주, 일제 강점기 조선사전수회에서 편찬한 조선사 등의 고서와 사료, 원전, 고인이 생전에 접두한 원인박사 소고 등의 연구 자료, 사진 및 슬라이드 등이다.



김영원 교수 유족은 지난 2010년에도 고인이 보관해온 교수수첩(1955~1975) 등 27점, 교재, 논문 6권, 개인 문증자료 3권 등 120여 점에 달하는 조선대학교 관련 자료를 기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금난새 서울예술고 교장 취임

지휘자 금난새(66)가 내달 10일 제8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한다.

서울예고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금난새를 현 서영님 교장의 후임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난새는 1990년대 초 국내 최초로 해설 음악회, 제야 음악회 등을 기획하는 등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섰다.

현재도 유라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고경영자 겸 음악감독,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KUKO) 지휘자, 창원대 석좌교수, 리움아트센터 예술감독 등으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전남대, 복지시설 방문 온누리 상품권 전달



전남대학교 지방문 총장은 지난 13일 로렌시아의 집·광주공원 노인복지관·무등자립생활관·다문화기숙지원센터·열린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전남대 제공〉

전남경찰청, 무안종합사회복지관 급식봉사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무안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200여명에게 과일과 떡을 전달하고 사랑의 급식봉사활동을 펼쳤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초등생 30명 중국 속 우리 역사 탐방



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창덕 조선대교수

국제항공엔진학회 참석



공창덕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3 국제항공엔진학회(IASBE)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아 ‘한국의 공기흡입 추진시스템의 연구개발 현황’을 발표, 한국의 항공엔진의 연구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안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에 감사패



무안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청계 농협 직원을 칭찬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양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의준)=17일(화) 오후 7시 011-645-2284.

▲전주이씨 대동종양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3일(월) 오전 11시 011-605-2059.

▲나주김씨 광주종친회=26일(목)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10-3399-5050.

▲해주최씨 대종회=28일(토)~29일(일) 경기도 강화군 김포시 지역 선조 유적지 집성촌 탑방 광주역 28일(토) 오전 7시, 참가 신청은 25일(수)까지 017-365-7865.

일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려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조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 지역 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입양은 가슴으로 넓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악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

우권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351-1206.

▲아시아실버원드 오케스트라 회원=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중 택 1개인지도 및 그룹·합주지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 민들로상 북구 거주자) 중 전국구 평균소득 120%(4인 가족기준소득 568만3000원)이하 062-226-2030, 010-4906-8904.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233-0468.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담배, 왜 끊기 어려운가요?” 전문가 초청 공개 강좌=24일(화) 오후 7시 30분~9시 (무료) 062-526-3370.

▲‘함께 인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 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